

# 웃음꽃 활짝 '희망복지박람회' 성료

### 군산시, 골든벨·런닝맨 미션 등 즐기는 체험 가족뮤지컬 유쾌한 공연으로 주민 참여도 높여

군산시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은파호수공원 제2주차장에서 '2017 군산시 희망복지 박람회'를 성대하게 열었다. 이번 박람회는 군산시립교향악단의 품격 있는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제18회 사회복지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으며, 기념식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은 복지유공자 5명(민간인4명, 공무원1명)이 군산시장 표창을 수여 받았다. 식후에는 군산영광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행복합니다' 플래시몹으로 사회복지기관·단체·시설 종사자들과 시민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박람

회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박람회는 제9회제를 맞이하여 '복지가 답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56개소 60여개의 부스를 설치하고 복지기관·시설·단체에서 복지와 관련된 홍보·전시·체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 주민들이 보다 쉽게 복지서비스를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읍면동 주민센터 발표대회, 통기타 경연대회, 복지골든벨 등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들이 공연을 즐기고 런닝맨미션을 통해 각 부스를

직접 체험하면서 몰랐던 복지분야를 알아가는 계기를 제공했고, 가족뮤지컬인 '짜잔 경찰'의 유쾌한 공연으로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문동신 군산시장은 "이번 박람회를 통해 지역주민이 복지정보와 서비스, 복지기관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다양한 생애주기별 부스 참여를 통해 '복지가 답이다'를 몸소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 "기름 유출사고는 단 한번으로도 재앙"

### 군산해경, 해양오염사고 예방 유조선 특별점검 돌입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해경이 관내 모든 유조선들을 대상으로 점검활동에 돌입한다. 지난 8일 군산해양경찰서는 "11일부터 22일까지 원유를 비롯한 각종 기름물질을 운반하는 모든 유조선에 대해 특별점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상시 운항 중인 200여 미만의 소형 유조선 9척과 항만에 위치한 저유시설에 유류를 공급하는 1,000t ~ 3,000t 규모의 입·출항하는 유조선이 대상이 된다. 이번 점검에서 합동점검단은 ▲선박 해양오염 비상계획서 준수여부를 확인

하고 ▲방제조치에 필요한 자재와 약제 비치여부 ▲의무 방제선 배치여부 ▲하역과정에서 배출구 폐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시설, 장비가 미흡하거나 부족한 경우 개선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운항금지 및 현장단속 등 추가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채광철 서장은 "기름 유출사고는 단 한번의 사고로도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일으키는 만큼 사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며 "사고에 대비한 충분한 예방조치가 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군산대 프라임사업단 '새활력'

### 크로스 센터·데이터 표준화 센터 현판 산업연계 맞춤형 교육 통해 전문성 확보

군산대학교 PRIME사업단이 산업연계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회수요연계 교육 R&D지원 시스템인 크로스 센터(Xing center)와 데이터 표준화 센터로, 둘 다 군산대학교 캠퍼스 내 산학협력관에 등지를 들었다. 현판식에는 크로스 센터장(정동원 교수), 데이터표준화 센터장(은병원 교수), PRIME사업 부단장, 교수 및 사업단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크로스 센터는 산업연계·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의 전문성 확보 및 질적

제고, 국고 지원 이후 5년간 프라임사업 지속성 확보 필요성에 의해 설립되었다. 군산대학교는 앞으로 Xing Center를 중심으로 프라임사업(산업연계교육 활성화선도대학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교육 및 R&D 연구사업을 개발하고, 프라임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후속 모델 발굴을 지원하게 된다. 한편 데이터 표준화 센터는 체계적이고 규범적인 데이터 관리체계를 위해 설립된 곳으로, 향후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및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위한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류



군산대학교 PRIME사업단이 산업연계 사회수요 맞춤형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센터와 데이터 표준화 센터를 설치하고 현판식을 개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시스템 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군산대학교 프라임사업단은 현장성 강화 교육과정 개발, 전공 간 상호 교류 프로그램 개발, 비교과 특화 프

로그램 등 차별화된 융복합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며 창의융합적 실무인재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 김충영 의원 "고속열차 환승할인 적용을"

###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지난달 28일 개최한 제204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12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난 8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및 일반안건 심의와 각 위원회별 주요사업장을 방문했다. 또한, 김충영 의원(사진 왼쪽)의 제안으로 '고속열차 환승할인 적용 촉구 건의안'과 김연식 의원(사진)의 5분 발언이 있었다. 김충영 의원은 고속열차를 이용하여 호남에서 영남으로 이동 시 환승이 불가피하고 대기시간도 많아 고객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할인요금을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김충영 의원은 코레일과 (주)SR은 고속열차 환승고객의 불편개선을



부담완화를 위해 고속열차간 환승에 할인인임을 적용하고 국토교통부는 고속열차 환승할인이 빠른 시일내 시행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김연식 의원은 삼기면 기산리 일원에 추진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 침출수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건강에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련시설 주변의 전수조사 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 익산시 전문경영 임업인 키운다

### 후계자 5명 선발... 연 인원 100명 육성 계획

익산시에서 전문적으로 임업을 경영할 임업후계자 5명이 선발됐다. 정현을 익산시장이 지난 8일 오전, 시청 시장실에서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장채환(56, 성당면), ▲김형표(56, 성당면), ▲여강현(57, 남중동), ▲이옥순(62, 금마면), ▲손명자(57, 삼기면) 등 5명에 임업후계자 증서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성당 내남마을 장채환, 김형표 씨는 올해 3월 수도권에서 전입한 귀농인들로 지난 7월 진안 임업기능 훈련원에서 임업후계자 양성교육을 마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할 계획이다. 여강현 씨는 3년 전부터 성당에서 소규모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해 앞으로 재배규모를 점차 늘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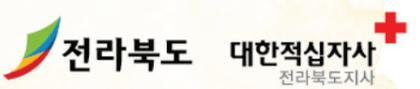
예정이다. 이옥순 씨는 금마 기양리에서 야생화, 분재 식물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체험·관광농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조정 확장에 힘쓰고 있다. 손명자 씨는 지난 8월 임업후계자 교육을 마치고 표고버섯을 재배할 계획으로 현재 부지를 조성 중이다. 임업후계자로 선발되면 산지(임야)를 취득할 경우 각종 세제 감면뿐 아니라 산림조합의 저리 융자금 지원·기술지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산림소득증대사업 등 각종 보조사업도 신청할 수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증서 수여 후 임업후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정현을 시장은 "대부분의 임산물 재배농가가 영세하고 품목에 대한 재배기술 부족으로 지금까지 수익창출에 한계가 많았다"며 "앞으로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 보급과 함께 임업후계자를 적극 발굴 육성하여 전문조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임업후계자 46명 중 절반 넘는 25명을 올해 선발했다. 앞으로 임업후계자를 적극 발굴하여 내년까지 연인원 100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 군산시립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선정

군산시립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2017년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서관 상주작가 지원사업은 문학 작가가 도서관에 상주하면서 문학 큐레이터로 활동하고 지역 주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학 향유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전국 37개 공공도서관에 각각 사업비 이전만원이 지원된다. 군산시립도서관은 9월부터 내년 5월

까지 9개월간 원도심 등 문화소외지역에 위치한 작은도서관에서 '지역 대표 문인 돌아보기'와 '동화 및 짧은 소설 창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으로 9월 중 지역 작가를 대상으로 상주작가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정준기 시립도서관관리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는 현역작가에게 직접 배우는 색다른 경험을, 작가에게는 문학소비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소통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싶다"고 말했다. /김판곤 기자



전라북도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